

골판지원료 대란, 업계 대응 대책은 무엇인가?



오진수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www.kcca.or.kr kcca01@empal.com

1. 최악으로 치닫는 기업환경

국내외 원부자재 가격 인상 문제가 심상치 않다. 국제 원유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소식이나, 중국의 인플레이 압력이 심하고, 철강, 나프타 등 모든 원자재가격의 인상이 회자되고 있어 기업 경영환경이 최악의 조건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우리 골판지포장업계의 경우로 한정하더라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기초 원자재인 펄프나 수입폐지, 옥수수전분가격의 운송임 폭등과 같은 업계 내부의 원가압박의 문제 뿐 아니라, 전기료와 제조원가의 7%수준에 육박하는 운반비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어 전방위적 원가요소에서 과거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2. 경험도 없는 원부자재 강세장의 지속

실제로 골판지원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지의 경우 지난해 톤당 8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가격이 현

재 13만원선을 상회하고, 지난 5월 수급균형이 붕괴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독난에 휩싸여 있어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옥수수전분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에너지 분야로 물량의 30%이상이 흘러가면서 수급균형이 무너지고, 가격이 지난 1년 내내 인상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전분업계에서는 11월부터 기존가격에 톤당 10달러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결의가 있었고, 국내 전분업계도 11월부로 약15% 수준의 인상을 통지하고 있는 등 내년은 수급 및 가격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폐지는 골판지상자의 원료 구성상 95%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폐지가격의 인상은 가격인상폭의 95%수준이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골판지원지 가격에 즉각적인 연동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더구나 예전과 달리 현재의 골판지원지업계는 구조조정 완성기에 있기 때문에 일반 통행식의

가격정책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제지업계는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가격 조정을 강행하며 손익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3. 골판지원지 가격 변동 패턴의 변화

반면에 골판지포장업계는 과잉설비로 인한 과당경쟁을 불식시킬 계기를 찾지 못하고 원자재가격 인상에 대한 대응력을 갖지 못하고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냉정한 평가이다. 그동안 골판지원지 가격변동 패턴은 인상후 3~4개월 후에 조정기를 거쳐 왔다는 경험칙으로 한순간만 감내하면 원점이라는 것이 골판지포장업계의 일반 정서가 되어 왔으며, 이것이 과당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과당경쟁의 폐해는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전업계의 적자산업화를 부추기게 되고, 기업의 성장 동력을 상실시켜 장기간에 이를 경우 시장도태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오게 되므로 과당경쟁을 일삼는 당사자는 결국 사회와 동업계, 해당기업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하는 주범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4.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응과제

골판지원지 가격 변동패턴이 달라졌다는 점은 골판지포장업계의 가격정책기조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크라프트라이너나 SCP심외의 경우, 인상 요인을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금년 들어서 네차례의 가격이 인상되었음을 상기해보면 향후 국내골판지원지 가격 변동 패턴을 읽는데 귀한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따라서 골판지포장업계에서도 원가변동 요인은 즉각 연동 반영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알게 모르게 관행화 되어왔던 기존의 거래질서를 정비하여 경영 합리화의 기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골판지의 공장하차도를 공장도착도 조건으로 바꾸고, 관행적으로 주는 로스 보전(덤)골판지를 없애고, 서비스로 스코어를 넣어주는 관행들은 사실상 원가압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 만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는 불합리한 일의 퇴치가 말로 매우 수월한 경영개선 대안이 될 것이다.

5. 생존조건 확보를 위한 업계의 선택

아울러 우리 골판지포장업계는 포장수요업계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주장할 수 있는 선에서 골판지와 골판지상자 가격정책이 수립되고, 『과괴적 경쟁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경쟁』으로, 『무질서한 경쟁질서가 아니라, 질서정연한 경쟁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급히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